

사순 제 5 주일

기도서 269 면(A해)

제1독서:에 제 37, 12-14
제2독서:로 마 8, 8-11
복 음:요 한 11, 1-45

숲 정 이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인 홍보국
인쇄처 관리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강론



죽은 자여, 일어나라!

김 봉 희 신부

우리는 가끔 '식물인간'(植物人間)이니 '동물인간'(動物人間)이니 하고 말할 때가 있다. 먹고 자고 입고 또 움직이기는 하지만 소위 사람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된다. 살아어도 이미 죽어 있는 사람, 어쩌면 육체만 살아있는 죽은 몸(시체)이라고나 할까?

फल을 갖춘 로봇이나 꼭두각시를 움직인다고 해서 결코 사람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인간이란 영혼과 육체로 결합된 존재요, 이성과 감정을 갖춘 고등 생(生)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죽은 시체는 엄격히 말해 아직 인간의 모습을 취하고는 있을지언정 한갓 썩어가는 고기덩어리일 뿐, 이미 사람은 아니랄 할 수 있다. 따라서 넋(魂)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런 뜻에서 또 한편 죽은 인간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정녕 우리는 지금 어떠한 존재일까? 살아 움직이고 숨을 쉬고는 있지만 과연 참 인간이랄 수 있을까? 풍채 좋고 또 때론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있는듯 하면서도 그실 내면은 텅 비고 혼이 나간듯 제 구실을 다 하지 못하는 '육체적 인간'만이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영혼을 지녔기에 신적(神的)인 존재이면서도 영적(靈的)인 삶을 도외시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비인간적인 '동물인간' 또는 '식물인간'으로 전락하진 않았는지...?

오늘 복음은 이런 우리들에게 '라자로'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참 삶과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새기도록 깨우쳐 주고 있다. 인간 생명이란 결코 우리 아닌 하느님 것, 생(生)을 주시기도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은 오로지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명심하게 한다. 그리고 인간의 운명, 곧 삶과 죽음의 기준이란 결국 하느님을 믿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또한 깊이 생각케 하고 있다. 생명의 주님 앞에선 우리 필경 살아도 죽은자, 또 죽더라도 살 수 있는 존재일 뿐이니까.

일어나 우리 다시 한번 정말 사람답게 살아보자. 죄에 죽고 악에 물렸다가 믿음과 성세(聖洗)로 새 삶의 축복을 누리던 그 순간, 그 손길을 상기하자. 주님은 지금 죄의 나락(奈落)으로 빠져 죽어간 우리를 살리시고져 다시 수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그리고 당신께 의지하며 믿고 구하는 자에겐 재생과 부활의 새 희망을 안겨주시려 다가와 또 속삭이고 계신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다"라고.

"잠에서 깨어나라, 죽음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리라"(에페소 5, 14).

(덕진 주임신부)



또 성금?

1. 건강하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건강이 행복한 생활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잘 아는 현대인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바른 가운데에도 갖가지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산보하는 일부부터 시작해서 헬스클럽의 회원이 되는 일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하기가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고 짜증이 나니,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 깃들 수 있다는 말은 옳은 소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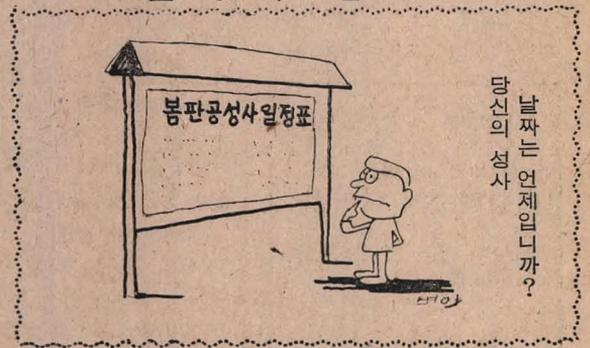
2. 봄철로 접어들면서 갖가지 체육제전이 열리고 있다. 주일날의 어떤 시간에는 텔레비전의 채널 셋이 모두 운동경기 중계에 열을 올리기도 한다. 스포츠 공화국이라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질 정도다. 하기가 썩어진 생활과 짜증나는 일들 때문에 걸친 스트레스를 푸는 한 방편으로 운동장의 열기에 파묻히고 싶은 현대인의 심리를 경기장의 모습에서 읽을 수도 있다. 그런데 어린아기가 들쳐 엮고 나온 아주머니의 모습을 화면에서 보노라면 생각이 달라진다. 경품이라는 미끼에 물린 물고기를 보는 것 같아 분노를 느낀다. 엄마 등에 매달린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던 말인가. 도대체 이게 누구의 조작이란 말인가. 여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3. 최근 보도에 의하면 도교육위원회는 소년 체전을 위한 성금을 걷기로 했다고 한다. 글썩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해도 납득이 안된다. 전체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몇몇 기능인(?)의 양성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해야 할 것인가.

4. 국위선양은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살아갈 때 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참가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는 올림픽의 참 정신을 배우자

5. 그리고 성금이라는 말 좀 하지 말자. 성금의 참 뜻이 변질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우리 사회를 타락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돌리자.

숲 정 이 산책



시성 시복의 절차와 기원

시성 시복이란 성덕이 높은 분들을 사망 후 성인이나 복자의 품위에 올리는 예식을 말한다. 옛부터 성덕이 높은 분들을 하느님께서 그분들과 관련하여 기적을 나타내 주신다고 믿어 왔다. 따라서, 그분의 성덕에 대한 많은 이들의 관심과 그분을 통해 기적이거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으면, 해당 주교는 그분의 언행, 저서, 기적 등을 엄밀히 조사하여 교황청에(신앙 교리 성성) 보고한다.

교황의 허가가 내려지면 성성은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하여 결과를 보고하면 교황은 덕성을 인정하는 교서를 발표한다. 덕성이 확정되고 그분을 통한 기적이 두 가지 이상이 있으면 의사, 병리학자 등 기적에 대하여 확실히 검사하여 진실로 기적이라는 것이 확정될 때까지 많은 관계 전문가들의 조사와 재판을 계속한다. 이때 인정이 된다면(기적이라고 확실해지면) 그분을 복자(복녀)로 선언한다. 이를 시복(諡福)이라고 한다. 단, 순교자는 기적의 확실성 여부의 재판이 필요 없다. 다음에 그분을 통하여 진실한 기적이 2가지 이상 일어날 때 같은 조사를 하여 성인으로 전 세계에 교황이 선언하고 의식을 거행한다. 이를 시성이라고 한다. 성인 성녀와 복자 복녀의 공경에 있어서, 복자는 그 공경이 어떤 지방이나 단체에 한하나, 성인은 전 세계 어디서나 누구든지 공경하게 된다. 그리고 성인 성녀의 축일은 대개 영원한 하느님의 나라에서 무한한 영광을 받은 사랑의 날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성인 공경의 기원 : 성인 공경은 가톨릭 교회의 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교회사를 따라 성인 공경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보면 대략 콘스탄틴 대제의 318년 밀라노 칙령(종교자유) 이후 치명자, 순교자 공경으로부터 유래된다고 보겠다.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종교 박해시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하는 것을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했다. 순교는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진리를 위해서 죽고 그 길을 따랐다”는 메시 그 존귀함을 인정했다.

특히 110년 안티오키아의 주교 성 이냐시오의 순교사에 보면, 그의 무죄함을 로마 황제에게 탄원하려는 로마 교회 당국에 탄원치 말도록 종용했던 사실과 오리게네스가 자기 아버지에게 순교를 권장함을 보아도 순교는 위대했다. 베르톨리아누스는 순교자의 피는 그리스도 신앙의 씨앗이라 할 정도로 순교를 찬양하고 순교자를 높이 공경하였다. 이처럼 성인 공경은 순교자 공경에서부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순교 복자도 또는 아직 복자 위에 오르시지 못한 순교자를 공경하기 위한 우리의 관심이 더 깊어져야겠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①

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본 이름은 카롤 보이티야이다. 그는 1920년 폴란드의 크라코프주 바로비체에서 육군 준사관의 아들로 태어났다. 9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하나뿐인 형마저 일찍 죽자 아버지와 단 둘이서 소년기를 보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의 카롤은 학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었다. 특히 외국어와 문학, 연구 등을 좋아해 직접 연구 단체를 조직하여 각본을 쓰고, 배역을 맡기도 하였다. 또한 체적이 진장했던 그는 축구, 스키, 등산, 테니스, 수영 등 다양한 운동선수이기도 했다.

1938년에 전통있는 크라코프의 야기테워 대학에서 폴란드어를 전공했으나 이듬해 2차 대전이 일어나 독일군이 폴란드를 점령하자 학업을 중단했다.

침략자 독일군은 대학을 폐쇄하고 교수들을 수용소에 감금시켰다. 그러나 체포되지 않은 교수들은 힘을 모아 지하대학을 개설하였다. 카롤도 이 대학에 입학하여 낮에는 채석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 이 시기에 그는 많은 시를 짓고, 독일군에게 쫓기는 유태인들을 도와주었다.

1941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카롤은 성직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크라코프 지하 신학교에 입학했다. 이 신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는 1946년 11월 마침내 사제로 서품되었다.

사제가 된지 얼마 안되어 보이티야 신부는 로마 안젤리코 대학에 유학하여 1948년에는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였다. 귀국한 후 처음에는 작은 시골 본당의 보좌신부로서 공산 치하의 신자들을 돌보다가 1956년부터는 루블린 대학의 신학교수로 일했다. 1958년에는 38세로 폴란드의 가장 젊은 주교가 되었고, 1963년에는 크라코프 대주교, 1964년에는 수도 대주교가 되었으며, 1967년에는 추기경이 되었다.

1978년 16일 16일 당시 111명의 추기경단은 다섯 차례의 투표 끝에 폴란드인 카롤 보이티야 추기경을 새 교황으로 선출했다. 카롤 보이티야 추기경은 요한 바오로 2세라는 이름으로 교황직에 올라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으니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로서 264대 교황이 된 것이다.

* 13일(금)은 인성회 단식 권고의 날입니다.

“가난하고 약한 이들과 함께” 하는 사순절이 되어야겠습니다.

미성
 MISARU HANDBAG
 全州 코아백화점 1층
미성핸드백 대리점
 *취급품목
 핸드백·벨트·지갑·기타
 피혁소품
 ☎ 교환 72-0551-5
 72-0561-5
 김혜걸(글라라)

최윤경(유리안나)
미용실 미용학원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
 학생 수시 모집
 해외 연수생 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 2496 ㉡ 8658

PRO-SPECS 각종레저용품
 신발, 조깅복, 테니스 라켓,
 스포츠용품 일절
프로스펙스
전복(백암)대리점
 양경자(안젤라)
 오거리 한국무선 옆
 ☎ ㉠3329 ㉡1443

신속배달 설비시설
한국 가스 상사
 ☎ 3-1457·72-0612
 김성두(토마스)
 이미자(안젤라)

전주교구 200주년기념 사순절 대강연회

200 주 년 의 의 미 와 과 제

- 때 : 4월 14일(토) 오후 7시 30분
- 곳 : 전주 중앙성당
- 감사 : 이 완영 수녀(성가회 총장)

당신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피와
당신의 자비로써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나 언제나 당신 말씀의 증인이 되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며
당신 왕국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해주십시오.

교부 마카리오의 기도

□같이 생각해 봅시다

교황 성하 왜 한국에 오시나?

5월 3일 교황 성하의 한국 방문은 당신께 맡겨진 양떼들을 돌보시려는 사목적 방문인 동시에 교황 성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순례의 여행을 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순례하시는 목자를 따르는 착한 양으로서 순례자의 마음을 간직해야 하겠으며 귀양살이하는 예와의 자손으로서의 우리의 처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하겠다. 또한 103위 순교 선열들의 시성식을 기리는 우리로서는 순교자적 자세를 이어받아 간직하면서, 세상에 주님의 기쁜 소식을—"이 땅에 빛을"—증거하여야 하겠다. 다시 말해, 천상 교황에서 주님의 품안에 편히 쉴 수 있는 그 날까지 우리는 세상의 순례자로서 이 땅에 빛을 증거하는 순교자적 자세를 깊이 간직해야 하겠다.

금·은·보석·시계

금 파

전주시 교사동
구역전오거리 입구
☎ (72)-3066
유 승주·황 로사리아

특수자연시 컴퓨터를 설치한

보안당 렌즈 센터

가볍고, 얇고, 원근조절 렌즈,
김 안서리는 렌즈로 여러분의
마음을 충족시켜 드리겠
읍니다.
전주구역전오거리 ☎ 3-3032

*마이크 엠프시설 전문
VTR, 냉장고, 칼라
TV, 세탁기, 녹음기,
전자렌지
공장도 가격 판매 개시
금성팩토링 체인점
백운전자
백 니노·이 메레사
☎ 3-0231
우신호텔-시민약국 중간

마 기 환 안 과

원장 : 전문의 마 기 환
장소 : 팔달로변 불새다방
2층
전 화 75-2203
한 남희(비리스타)

유리피아노교실

서중학교 로타리
☎ 4-5539
박 주리아

※ 각종 가방 제조원
☆선물용·행사용·개업☆
주산가방·유치원가방
고주파 시설 완비
노트포지·메뉴표·통장케스
전주PR사 ⑥ 0901
전주 서서학동(장승백이)
이 진 국(다마스)

□개원안내

등 보 한 의 원
원장 김경환(파비아노)
☎ 52-4666
등 부 약 국
약사 범승복(안나)
☎ 3-7217
이리시 동부시장 내

요심이(557) 김병오

치안본부장님
택입니까?



요새 살인강도
사건이 많이 일어
나는데...



택에서도 문단속
잘하시고 사나운
개도 키우세요



만일에택에 강도가
들어왔다하면
국제적인 망신
이니까요



직원 채용 공고

전주시 거주자로 고졸이상
남 25세, 여 18세 이상

1. 채용인원 : 남·여 각 〇명
2. 제출서류 : 자필 이력서·주민등록 등본·병적 증명서·출입 증명서·주산·부기 3급이상 자격증 각 1통
3. 접수마감 : 84. 4. 10
4. 접수처 : 당 신청 총무과 (☎ 4559)
5. 전형일시 및 장소 : 84. 4. 11 오전 10시 당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치않음

전주 파티마 신용 협동조합
이사장 이 원 갑

(4) 순 정 이



☆ 15일(성지주일)은 인성회 공동헌금일입니다

- 결혼강좌: 14일 오후 7시, 장소-가톨릭 센터, 대상-미혼 남녀, 기혼자
- M.E 소개의 밤, 재모임: 14일 오후 4시, 장소-가톨릭 센터
- 주교님 성주간 예절 집전: 성지주일-남원, 성목요일(단찬미사)-성체회 본원, 성금요일-상지원, 성토요일-오룡동, 부활대축일-중앙
- 장애자(하나회) 모임: 15일 오후 2시, 장소-가톨릭 센터
- 대학생 연합회 Pax제 및 200주년 행사 참가: 일시-5월 5일~6일, 대상-교구내 모든 대학생, 접수-단위대 및 연합회 사무실, 회비-8천원

제 1 지구 각 분당 소식①

(중앙)

전화 ⑥1711 3
주임 신부 윤 정 현
보좌 신부 김 인 협
사도 회장 김 인 협

- 사순절 특별강연회: 14일 오후 7시30분 주제-200주년의 의미와 과제, 이완영 수녀
- 성시간: 목요일 저녁미사 후
- 판공성사 일정: 시간 오전 10~12시, 오후 7~9시 10일-가사경원·중노·금암, 11일-태평, 12일-서노·진곡, 13일-인후, 14일-학생·기타, 15일-간중리공소(오후 3시)
- 광주 방한티켓: 분당 사무실, 1매-4천원, 금일마감
- 성모회: 15일 공식미사 후
- 영화(김대건) 상영: 15일 저녁미사 후, 1천원
- 인성회 헌금: 15일
- 벼들헌금: 10,864장 봉헌
- 지난주 봉헌금: 1,082,377원 교무금: 837,500원
감사헌금: 전안토니아(3천원)

(노송동)

신부 ⑩0969 주임 신부 김 용 태
수녀 ④7932 보좌 신부 나 춘 성
사도 회장 이 흥 재

- 신축기금 바자회: 9~13일까지, 장소-가톨릭 센터 모든 가정필수품 및 각종 의류품 일절
- 부활 판공일정: 11일-오전 신원리·오후 양정리, 12일-오전 황운리·오후 다리리, 13일-오전 금상리·신교리, 13일-오후 유아동, 14일-오전 노인들·오후 직장인들, 15일-오후 3시 초·중·고생·청년들
- 사순절 특별행사 초청: 오늘 공식미사와 저녁미사에 특별강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성화상영: 오늘 저녁미사 후
제목-가장 위대한 사랑과 성모님편
- 사도회 상임위원회: 오늘 공식미사 후

(덕진)

신부 (3)2182 주임 신부 김 동 희
전화 수녀 (72)1222 보좌 신부 정 양 현
사무 (72)6259 사도 회장 양 상 열

- 춘계(부활) 판공성사: ①성사 미필자는 10·12일 저녁미사 전후에 모두 보시기 바랍니다
②전당리공소-13일 동산촌-14일 저녁
- 수난영화: "가장 거룩한 사랑" 분당에서 상영 일시-11일 7시30분, 모두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 부활영세자 특별교리: 16일~18일 저녁 7시30분
- 200주년 행사 참가 신청: 금주까지 접수 완료 바랍니다 서울-6,500원, 광주-5,000원
- 15일(성지주일)부터는 성주간입니다 전례준비 성가연습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 오늘 모임·행사: 200주년 기념품 판매 (성심부녀회) L.M 푸리아회의-2시, 중·교학생회-9시 미사후 금주 분당청소-청년연합회
- 성모동굴 및 꽃밭 조성작업에 1일 노력봉사 바람
- 지난주 봉헌금: 531,175원 교무금: 297,500원

(복자)

전화 ②5238번 주임 신부 권 영 균
사도 회장 김 성 원

- 성시간: 5일-십자가의 길 기도, 6일-저녁미사 후
- 수녀님 부임: 9일, 환영합니다
- 판공성사: 13·14·15·16일 오전10~12시, 오후2시~5시 저녁미사 후, 14·15일 학생 직장인(교무금 완납)
- 슬라이드 상영: 오늘 저녁미사 후
- 수녀원 축복식: 8일 공식미사 후
- 주일헌금: 한분도 빠짐없이 헌금에 관심 가지시다
- 단식일(인성회 헌금): 13일 단식하여 15일 주일에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15일(다음주일)은 성지주일
- 병자봉성체: 11일-병자를 모신 가정은 연락 바람

- 수난복음: + 신부님 ◦ 조성호 ◎ 김성원
- 차주전례: 해설-유덕열, 독서-①장기연 ②천 진
- 지난주 봉헌금: 121,340원 교무금: 514,150원

(서화동)

신부 ⑩8307번 주임 신부 김 동 준
수녀 ②2276번 사도 회장 김 낙 균

- 모임: 반장님 월례회-오늘 공식미사 후, 푸리아-오늘 오후 2시, 울트레아-10일 저녁미사 후, 성심회-13일 오후 2시, 성모회-다음주 공식미사 후, 보미사단-12일 오후 6시
- 사목방문: 10반-10일·11일
- 사제양성 후임금 신입바람: 1구좌-2만원 여러분이 합동으로 해도 가함
- 유아세례: 매월 3째주 목요일 10시 미사후 대·부모 미리 신청하시고 같이 참석 요망
- 주일 공식미사에는 미사예를 사양합니다
- 차주전례: 독서-①박장준 ②김나성
- 지난주 봉헌금366,555원 교무금: 411,000원

(순정이)

전화⑦7366 주임 신부 김 종 길
수·유⑧9567 사도 회장 김 수 균

- 사도회·푸리아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 봄 판공일정: 시간-오후 2~6시, 8일-국민학생, 11일-진북2동 5·6·7·8구역, 12일-진북2동 9·10구역·동양아파트, 13일-진북1동·태평동·기타
- 인성회 헌금: 13일 단식교 육, 특별헌금 있음 15일
- 영세자 광고: 17일 오후 8시
- 영세식: 21일 오후 2시
- 유아영세식: 21일 오전 10시
- 누깁다 부녀회: 11일 어머니미사 후
- 애령회: 오늘 공식미사 후
- 차주전례: 해설-이기호, 독서-기도-이동현·임동래
- 지난주 봉헌금: 179,980원 교무금: 393,000원

(전동)

신부 ⑥6208 주임 신부 김 치 삼
전화 사무 ③3222 보좌 신부 박 찬 길
수녀 ⑧8347 사도 회장 김 범 오

- 자도회·장우회: 공식미사 후
- 섬마리아 푸리아: 오늘 오후 2시
- 성화회·피미시움: 다음주
- 산상미사: 4일~14일 오전 5시30분 산미사중 분당 아침미사 없음, 주일은 제외
- 서울 시성식 참석하실 분 접수 바람: 사무실 전착순
- 봄 판공성사표 배부일정: 10일-전동·중앙동·다가동, 11일-동교동·서교동, 12일-동완산동·서완산동, 13일-풍남동·남노송동, 14일-기타동·경원동·학생
- 판공일정: 17일-전동·중앙동·다가동, 18일-풍남동·남노송동, 19일-동완산동·서완산동·기타동, 20일-동교동·서교동·경원동·학생
-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박종구, 독서-①최병래 ②이주영
공식미사: 해설-양현홍, 독서-①유기동 ②백종홍
저녁미사: 해설-이애칠, 독서-①김희진 ②최종만
- 지난주 봉헌금: 900,730원 교무금: 517,000원

(호자동)

신부 75-3841 주임신부 박 중 신
수녀 2-4804 사도회장 황 희 상
사무 2-0915

- 초청 고해신부: 15일 하루종일, 18일 저녁 7~9시
- 교황 방한 기념품 판매: 일요일 미사후
- 영화: 「구세주」 오늘 저녁미사 후
- 서울 시성식 참석: 6천원
- 영세식: 15일 오전 10시
- 지난주 봉헌금: 363,450원 교무금: 404,000원
감사헌금: 예비자 이정진-1만원